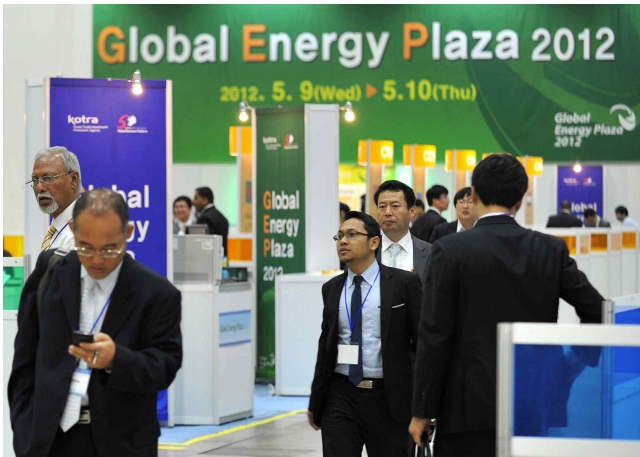


KOTRA, Global Energy Plaza 2012 개최

KOTRA(사장 오영호)는 지식경제부 후원으로 5월9-10일 삼성동 COEX에서 <Global Energy Plaza 2012>를 개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일진전기, 삼화콘덴서 등 총 200여개 국내업체 및 발전사들이 참가하며, 해외



에서는 인도 최대 발전사인 Tata Power를 비롯해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인 미국의 General Electric, 일본의 Kansai Electric, 요르단 전력청 NEPCO 등 33개국 96개 바이어들과 UAE 원전수주 이후 높아진 한국전력산업의 위상을 반영하듯 32개사에 달하는 원전·신재생 에너지 관련 바이어들도 대거 방문했다.

최근 미국 미시간주의 900억달러 규모의 전력 프로젝트를 수주한 스웨덴의 ABB는 관련설비 기자재 구매를 위해 한국을 찾았으며, 과테말라 최대 배전 기업인 EGGSA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대규모

기자재 도입 계획에 대한 구매상담을 했다.

김병권 KOTRA 전략마케팅 본부장은 “세계 각국의 유력 발주처 및 바이어가 수출 상담을 위해 대거 방문한 것은 국내 전력산업의 강화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수시장 한계를 겪는 국내 전력산업 수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미하 기자>

<화학저널 2012/05/11>